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0(土)	21(日)
	
맑음 8/14℃	맑음 6/19℃

News

- 대선주자들 잇단 '호남행' ②
- 경찰 밴드 '광산 폴 음악사랑' ③
- 기아 조범현감독 인터뷰 ⑧

Jeollado

- 그 사람-김성용 신부 ⑦



Entertainment

- 대작 드라마 붐물 ⑧
- '찰떡궁합' 배우·감독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구기자 ⑬



우림재단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진남과학대학
 http://www.jn.ac.kr



갈대밭 누비는 동심

19일 순천만 대대포구를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어린이들이 은빛으로 일렁이는 갈대밭 속에서 무리악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내 '와이브로' 국제표준 채택

3세대 기술론 세계 6번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Wi-Bro) 기술이 IMT-2000으로 통칭되는 3세대(G)의 6번째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18일 오후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진행된 전파총회(Radio Assembly) 본회의에서 한국의 와이브로 기술을 3G 국제표준으로 승인했다.

휴대인터넷 또는 모바일 와이맥스로 불리는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광대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통신 서비스이다.

와이브로가 3G 국제표준의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글로벌 로밍이 가능한 전세계 IMT-2000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즉, 와이브로가 기존의 IMT-2000이 쓰이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에서 신규로 서비스를 하게 될 때 와이브로를 선택할 기회가 확대되고, 다소 복잡한 구조의 cdma-2000 및 W-CDMA 보다 더욱 경제적인 망의 설계와 구축이 가능해진다. /제배=연합뉴스

“아이디어·도전정신 앞 학력은 물거품”

■ ‘고졸스타’ 금호 윤생진 상무 장성 아카데미 특강

“실험정신 높이 사는 조직 만드시 성공”

“대졸 출신에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대졸자는 학력 만능주의를 탈피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맨’ 윤생진(57·사진) 금호 아시아나 전략경영본부 상무가 18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좌에서 우리사회의 학력 만능주의를 질타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보다는 실험정신과 아이디어가 많은 조직(기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조한 윤 상무는 특유의 재치있는 화술로 자리를 꽂 매운 300여 청중들로 부터 여러차례 박수를 받았다.

신안 흑산도 출신인 윤 상무는 목포공고 졸업 후 지난 78년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7번의 특진을 거듭, 20여년 만에 상무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입사 3년차인 지난 1981년 타이어 제조공정인 일일제 가류기(타이어 형성기)의 동

작순서를 바꿔 10초를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연간 20억원의 이익을 회사에 안겨줬다. 86년에는 1년 동안 2천800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등 3년 연속 사내 제안왕에 올랐고 지금까지 작업공정을 개선시키는 내용의 제안서 1만8천600건을 제출했다. 이같은 공로로 그는 대통령 표창 5회, 사장표창 52회, 한국 최우수 신지식인상 등 숭한 상을 수상했다.

그의 생애는 듯한 아이디어의 원천은 뭘까? 윤 상무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매달려 해결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사내 청소부가 무심코 그의 아이디어가 적힌 메모지를 치워버려 온 쓰레기장을 뒤진 적도 있다.

바쁜 회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한양대와 아주대·조선대 등 대학 강의와 월 1회 정도 전국을 오가며 특강을 하고 있다. 강연을 통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조직(기업)이 발전하려면 학벌이 아니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맨과 과학 기



술자들을 양성하고 우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쓴 자전적 수기 ‘미치게 살아가라’는 책은 한국 장인정신의 모범 사례로 독일에서 번역·출판되기도 했다.

윤 상무는 지금도 파도나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열핏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의 표현으로는 ‘세상이 뒤집어 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900대 핵심기술중 미국이 45%, 일본이 30%를 보유했지만 우리는 겨우 1%에 불과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윤 상무는 강연 내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BBK 김경준’ 귀국한다

미 법원 송환 승인... 대선정국 변수 가능성

범여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BBK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승인, 김씨의 귀국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8일 김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요청과 관련한 재판을 열고 신청서를 받아들여 김씨의 한국행이 이뤄지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항소법원에 김경준씨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검찰도 신청서 승인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의 범외인도 요청에 따라 김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보안국)은 김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 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김씨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무부에 보내 한국 정부와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의 송환 승인에 따라 우리 정부도 김씨의 신병 이송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미 국 사법부의 김씨 송환 승인결정이 내려진 19일 현지 파견 중인 협력관과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미 국무부의 최종적인 신병 인도 결정에 대비해 호송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미 국무부의 결정이 난 이후부터 시작된다. 미국 국무부는 법원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김씨의 송환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주로 60일보다 채우지 않고 기한 만료 시점을 3주 가량 앞두고 결정한다.

한편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은 김경준씨의 귀국 배후설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측이 정 후보 측근 개인실을 제기한데 대해 정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innisfree